전남 수출中企 신용도 악화

수출업체 50% 신용등급 떨어지고
20%는 수출보험 가입조차 불가능

광주는 우수업체 비율 7.7%P 올라

올 들어 글로벌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수출업체 두 곳 중 한 곳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다섯 곳중 한 곳은 수출보험 가입 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광주 수출기업들의 신용도는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남지역 수출업체 40곳의 신용등급이 1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올해 수보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전남 수출중기(79곳)의 50.6% 수준으로, 지역내 수출중기 두 곳중 한 곳의 신용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신용등급의 하락할 경우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액이 1천만달러인 업체의 경우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1천8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남은 수출업체 다섯 곳중 한 곳은 신용등급 미달로 수출보험가입 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말 현재 전남에서 보험가입 불가판정을 받은 업체는 14곳으로, 전체의 17.7% 차지했다.

이는 2007년 불가판정 비율(7.8%)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해당 기업은 수입업체에서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 스스로 회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수출업체(63곳)들의 우수비율이 12.9%에서 20.6%로 7.7%포인트 높아지는 등 업체들의 재무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광주는 전체의 12.7%(8곳)가 보험가입 불가판정을 받은 데다 17.5%(11곳)는 1년새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해 수보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국내 수출업체 3천686곳중 1천191곳의 신용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이는 전체의 32.3%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출 중기의 재무상황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동반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8월 말 현재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국내 업체는 전체의 26%(958개)를 차지하는 등 업계의 신용도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수보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의 손해율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수출보증의 손해율은 1천497%로, 지난해(1천234%)에 비해 265%포인트나 높아졌다.

수출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 제조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할 경우 수보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때 수보가 대신 빚을 갚아주게 된다.

수보 관계자는 "불황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래저래 중소업체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코트라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광주·전남 전국 최하위"

■ 김재균 의원 국감서 주장

"광주 0.1%, 전남 0.24%"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가 추진하는 광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코트라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제출한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광주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올해 1~6월 500만달러로, 전국(45억4천6백만달러)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트라는 2005년 광주에 불과 3천900만달러(전국의 0.3%)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2006년 1천600만달러(0.1%), 2007년 2천200만달러(0.2%)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전남도도 2005년부터 3억3천300만달러, 7천200만달러, 5억6천100만달러, 올 6월까지 1천100만달러로 0.24%에 그쳤다.

반면에 코트라가 거둔 올해 상반기 실적중 서울은 25억800만달러로 55.2%를 차지했고, 경기도 9억1천만달러(20%), 경북 3억3천만달러(7.2%), 인천 1억1천800만달러(2.8%), 경남 1억1천만달러(2.4%)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역의 기업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부 정부의 책임"이라며 "광산업 등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 등을 고려한 기획투자를 추진하고,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가을 머플러 이렇게 광주신세계백화점은 8일 백화점 1층 광장에서 가을 멋쟁이들을 위한 머플러 연출법을 선보여 여성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전남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매출

고물가 영향 소비 감소따라
판매액 6.1%, 4.9%씩 줄어
광주·전남 통계청 8월 집계

뚝↓

불황의 여파로 광주·전남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으면서 8월중 대형할인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경우 고물가의 영향으로 경상판매액만 소폭 늘었을 뿐,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한 판매 규모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

8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8월중 광주의 대형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경상금액)은 1천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7월(1천244억원)에 비해 6.1%(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고물가의 여파로 대형소매점의 경상판매액이 1년 전보다 10.7%나 늘었다. 올 들어 소비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가 크게 뛰는 바람에 판매액만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 전남도 8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642억원으로 전달(675억원)보다 4.9% 줄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에 비해선 13.3%나 늘어난 것이어서 물가급등에 따른 판매액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8월중 전국의 소매판매액은 20조2천37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5%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불변금액 판매액'은 18조3천7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에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할 경우 사실상 국내 소비가 정체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잡지 속 사진 그대로 연출'
기아차 '쏘울 무빙매거진'

12일까지 이색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8일 신개념 CUV 쏘울의 스타일을 알리기 위해 패션전문지 피가로와 제휴해 '쏘울 무빙매거진' 이라는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

'무빙 매거진'이란 잡지 속에서 등장한 제품들이 움직이는 실제 공간에 연출돼 소비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마케팅 기법이다. 쏘울은 이번 무빙 매거진에서 '미라클(Miracle)'을 테마로 아쿠아 디 파르마(ACQUA DI PARMA), 라리크(LALIQUE), 크리드(CREED), 탐스(TOMS) 등 유명 브랜드 제품과 오는 12일까지 전시된다.

기아차는 쏘울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 압구정 국내영업본부 전시장을 무빙매거진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한편 쏘울 타겟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압구정 주요 지역에도 쏘울 이색 전시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기아차는 무빙매거진 전시공간에 '쏘울 아트카(SOUL Art-Car)'를 함께 전시했다.

기아차는 13일부터 23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쏘울 아트카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금 전액을 자선단체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쏘울(SOUL)은 직선형 바디, 국내 최초로 적용된 블랙 A필라 등 독특하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라이팅 시트, 라이팅 스피커를 비롯한 신사양, 커스터 마이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출시 20일이 지난 현재 3천500여대가 계약되는 등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방 국세청 조직 없애고
본청-세무서 2단계 추진

국세청 개혁안 청와대 보고

정부가 지방국세청 조직을 전면 폐지하고 권역별 광역세무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 국세청 조직체계가 '본청-세무서' 2단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7일 청와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부즈앨런&해밀턴 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개혁방향' 보고서를 완성해 재정부 보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고, 조사방식도 대면이 아니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청 업무 감시를 위해 미국 국세청 감시위원회(IRS Oversight Board)와 유사한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